



광주소방서 관련 기사

2022년 8월 2일(화)



광주 초월읍 남녀의용소방대, 위기가구 주거환경 정비



광주 초월읍 남녀의용소방대가 주거환경 정비를 실시했다. (사진·광주시제공)

광주시 초월읍 남녀의용소방대는 지난 달 30일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초월읍 산이리 소재 위기가구 주거환경 정비에 앞장섰다. 해당 가구는 초월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위기가구로 신고된 10대 남매를 둔 한부모 가구로 아버지가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해 장례부터 자녀들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입소까지 통합 관리하던 가정이다.

이날 초월읍 남녀의용소방대는 빈집이 된 위기가구 살림살이를 들어내 폐기처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하며 땀방울을 흘렸다.

이두률 제명애 초월읍 남녀의용소방대장은 “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역의 봉사자로서 앞장서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대해 구정서 읍장은 “더운 날씨에 고생해 주신 초월읍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복지지원이 촘촘하게 연계돼 든든하다”고 감사를 표했다.

광주/박종호 기자 pjh@hyundailbo.com